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배로 늘린다

전남도 2019년 전국 최초 시행 전 읍면동 319개 2208명 활동 민선8기 16만6000가구 혜택 목표

전남도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상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동하고 있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전남지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증가로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전등 교체, 전자제품 오작동 수리 등 단순한 생활불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 4월 전국 처음으로 민관 순수 자원봉사 조직으로서 민관협동 복지안전망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출범시켰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 22개 시군과 297개 전 읍면동 총 319개 기동대 2208명으로 구성됐다. 1개 기동대에는 전기·가스·주택설비 종사자·이동장 등 이웃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알면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지역주민 10명 이내로 이뤄졌다. 취약계층의 전등, 수전, 창틀, 전자제품 오작동 등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가구당 100만원 범위에서 수리해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금 5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 지난 4년 동안 총 6만3929 가구에 97억원을 지원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지난

2020년 87.2%, 2021년 95.6%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전국 최초 복지사업으로 민선7기에 활발하게 추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전남도는 민선8기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민선8기 동안 400억원을 확보해 도 전체 가구(90만7000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16만6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각종 공모사업, 후원자 발굴,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지속 지원 가능한 모델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복지기동대 사업이 2023년 복권기금 신규사업으로 확정돼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생활과 밀접한 전기, 보일러 등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 민간인을 추가 발굴해 현재 319개대 2208명으로 운영하는 복지기동대원을 319개대 5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천원 여객선’ 1320개 구간으로 확대

섬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

전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섬 주민의 해상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천원 여객선’ 운임사업을 시범 실시,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올해부터 총 1320개 구간으로 전면 확대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섬 주민 누구나 1000원으로 주소지 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수 등 7개 시군 166개 섬 주민의 생필품 구매, 의료시설 이용, 문화생활,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여 생계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의 어르신들의 병·의원 왕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천원 여객선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존에 섬 주민들은 구간별로 거리가 짧은 구간은 50%, 먼 구간은 최대 7000원의 운임을 부담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일부터는 육지 기준 가장 멀리 떨어진 목포-가거도(만제도), 여수-거문도 등의 항로를 이용하는 섬 주민도 천원 단일요금제

혜택을 받으므로써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의 불균형을 해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시대’를 열었다.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1000원 여객선을 이용한 섬 주민은 130만 건으로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60만 건)의 81%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더 많은 섬 주민이 이용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이와 별도로 ‘2022년-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목포-가거도 등 4개 항로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객 운임을 50% 지원하는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시범사업’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8월 말 현재까지 이용객은 편도 5만7000명을 넘어섰고 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 여객선 운임 국고지원 확대 및 보조항로 공영제 전환 등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며 “또한 여객선 반값 운임 구간 확대 등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추석 연휴 전남 농촌마을 큰 인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민박 할인

추석 연휴 전남 농촌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농촌체험·휴양·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광상품으로 연계하고 농촌민박 30% 할인 시책도 영향을

미쳤다. 전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형 농촌관광 상품을 30~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귀성객이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농촌을 체험하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민박에서 숙박을 하면 숙박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4만원)을 남도장터할인쿠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보성 일림산서 채집한 식물표본 70점 전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18일까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해 보성 일림산 일원에서 수집한 식물표본 70점을 오는 18일까지 북재에서 ‘전남의 자생식물’ 주제로 전시한다. 전시자료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회가 넘는 현장탐사를 통해 직접 수집해 제작한 식물표본 500종 가운데,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보성 일림산 관속식물상 조사는 2019년 전남지역 연구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 보성군 산림부서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수집종은 매미꽃, 옥녀쑈대, 뽕나무리 등

희귀식물 7종과 새끼노루귀, 은쟁반다리 등 특산식물 16종 등이며, 그 결과를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22년 6월호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자생식물 표본전시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3월 전남도청 로비에서 1주일간 개최했다. 국립나주 순채원에서 산림자원 교육홍보를 위해 8월 8일부터 1주일간 전시했다. 앞으로도 도내 향토자원 탐사를 지속해서 추진, 수집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도내 자생식물을 알릴 계획이다. 2022년 산림자원 탐사는 담양 가마골 일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북산림자원연구소와 공동탐사를 통해 분류동정에 전문성을 더했다. 또한 전남대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 산림전문교육에서 참여하는 등 산림자원탐사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속도

전남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전남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의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사군 유족회장,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윤선자 전남대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의 과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유족회장 및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남지역 54건, 7078명 희생자의 진실을 규명했고, 올해 제2기에서 영암 확산면 주민 133명과 진도·화순 민간인 50명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는 등 조사와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전체 규모와 사건 내용을 한눈에 볼 역사적 자료가 없어, 희생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 2023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와 전남대산학협력단은 서부권 8개 시군의 현장조사와 6·25 피살자 명부와 같은 정부·군경 자료, 향토사 자료, 학술자료 등 여러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 제1차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후 중부권과 기타지역 희생자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반영해 의미있는 위령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확대

올해 22개 전 시군 운영 방침

전남도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

효율이 많아짐에 따라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구례, 보성, 강진, 함평, 영광에서 운영을 확대했고, 8월에는 곡성, 고흥, 화순, 진도, 신안에서 추가 운영을 시작해 현재 15개 시군에서 바우처 택시 174대가 운영 중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을 준비하는 목포시 등 나머지 7개 시군에서 운영을 시작하면 전남도 모든 지역

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시군과 협약한 택시가 우선 배차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교통약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배차 지연 및 대기 시간이 단축돼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